

# 두달간 830건 발부 ‘압수수색 노이로제’

## 뉴스초점 광주 압수수색 급증 왜?

### 김용구·최순실 파문 등 잇따라 지난해 동기보다 28%나 늘어 시청·구청 등 공직사회 위축 지나친 압수수색 불만도

광주시청(9월8·27일), 광주교대(10월26일), 광주 광산구청·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10월28일), 한국콘텐츠진흥원(11월2일)...

최근 한달여 사이에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한 공공기관들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압수수색 소식 탓에 광주·전남 공직사회가 공포 얼어붙었다.

실제 최근 2개월간 광주지법에서 발부

한 압수수색영장은 830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7% 급증한 것이다. 그만큼 압수수색이 많았다는 얘기다.

광주시와 산하기관의 용역·납품 비리 등의 혐의가 포착된 마당에 수사기관의 칼날은 피할 길이 없어보여, 당분간 공직사회는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달 검찰이 광주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검정영장은 총 474건이었다. 밤이 중 범인은 422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고, 47건은 일부기각, 2건은 기각했다. 나머지 3건은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328건보다 무려 28.7%(94건) 급증한 수치다.

앞서 9월에도 407건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고, 이는 지난해 동기(321건)대비 26.8%(86건) 증가한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관가(官家)를 뒤흔든 압

수수색 대풍은 전남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시작했다. S건설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S건설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받아 쟁건 김용구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의 비리를 포착,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고, 여파는 또 다른 건설사·시중은행으로 번졌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관공서 납품 비리가 불거졌고, 급기야 광주의 한 LED조명업체에서 ‘뇌물 장부’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광주 광산구청·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광주시·전남도 산하기관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장부에는 100명에 달하는 명단이 있으며, 일시와 액수 등이 꼼꼼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비리 정황이 포착된 관공서 관계자들을 차례로 조사하고 있어,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 ‘최

순실 게이트’와 관련,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압수수색 당하면서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의 기본 책무”라며 “수사는 일절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추가 압수수색도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지역민들도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바라고 있다.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납품 비리 등 부정부패를 끊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다만, 일각에서는 두달 가까이 수사가 이어지면서 공직사회가 경색돼 민생 쟁거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직 안정은 민생과 직결됨을 감안해 일정하면서도 속도있게 마무리해 달라는 주문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선거때 금품 살포’ 고흥군의회 의장 구속

군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살포 의혹을 받은 고흥군의회 의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고흥군의회 7대 상·하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군의회 김 모(57) 의장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6월24일 진행된 고흥군의회 7대 하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고흥군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지인 윤 모(64)씨를 통해 동료 A의원에게 1000만원의 뇌물(사기 등)을 제공했다고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윤씨에게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뒷돈 선거’에 관여한 혐의(뇌물공여)로 윤씨를 지난 9월 중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장은 또 지난 2014년 상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B의원 C의원에게 각각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의원은 돈을 받았다가 며칠 뒤 돌려주고, C의원은 현장에서 거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장은 현재도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월21일 김 의장을 입건하는 한편 김 의장과 아내의 계좌, 의장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u@kwangju.co.kr

## 여친 명의 사채 대출 받고 성매매까지

### 광주북부경찰, 조폭 구속

로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께 지인 소개로 만난 A씨에게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벌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일수 대출을 받아 유혹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자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인 김씨는 지난 2~5월 여자친구 A(25)씨 명의로 6차례에 걸쳐 사채업자들에게 ‘일수 대출’ 7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3~4월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건물 5층에 불법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대금 350만원을 가

라게 징수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께 지인 소개로 만난 A씨에게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벌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일수 대출을 받아 유혹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자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저항하기도 했지만 190cm의 키에 100kg이 넘는 김씨가 문신을 보이면서 협박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 때문에 성매매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김씨가 단속을 피해 잠적하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YMCA는 2일 오전 광주시 동구 YMCA 백제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나병주기자 mjna@kwangju.co.kr



호남대학교 총학생회가 2일 학교 정문 앞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성난 민심... 들불처럼 번지는 시국선언

### 광주YMCA·호남대·가톨릭대·경실련 등 대통령 하야 촉구 잇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과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정치, 종교, 사회 등 각계가 참여하는 비상 시국회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광주YMCA는 2일 오전 광주시 동구 YMCA 백제실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비선 실제 국정농단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헌 문란의 가장 큰 책임자인 대통령은 이미 헌법상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질을 상실했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 직접 수사 및 퇴진 ▲비선 실제 국정농단 세력 엄벌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특검법 제정 및 특검 실시 등을 촉구했다.

광주가톨릭대 신학생회도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임 받은 주권을 자력없는 사람에게 넘긴 것은 ‘민주주의 죽음’이다”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사망 등 현 정권에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 없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경실련은 전국 경실련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문란과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고백하고 즉각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호남대 총학생회는 이날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이 참담한 현실에 통탄하고 분노한다”며 “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며 박근혜 정권의 하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흥사단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 ▲책임 있는

거국중립내각 수립 ▲별도 특검을 통한 최순실과 관련된 처벌 등을 요구했다.

백남기농민 광주투쟁본부와 민주주의 광주행동 등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퇴진 비상 시국회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각계가 참여하는 비상 시국회의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서로 의견을 확인하고 공동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광주YMCA·광주YWCA·광주CBS·광주NCC 등 박근혜 퇴진 기동단체는 3일 오후 2시 광주YMCA에서 시국기도회를 열고, 전국로 광주대학교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영선 신부)는 7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동구 남동5·18기념성당에서 시국미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자폐증 초등생 상습 학대 특수교사 구속

의사표시 능력조차 제대로 갖췄지 못한 장애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60대 특수교사가 구속됐다. 경찰은 학대 행위가 교실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이뤄진 점을 근거로 학교 측의 묵인 내지 방조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구례경찰은 1일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

생 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최소 3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A군이 판소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복채를 이용해 손가락 등을 때렸으며, 수업 중 졸았다는 이유로 A군을 교실 내 세면대로 끌고 가 머리를 집어넣는 등 물고문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 특수교사로 근무했던 정씨는 올해 2월 정년한 뒤 다시 기간제 특수 교사로

재용됐다. 경찰은 유일한 특수반 학생 A군을 정씨가 4년가량 지도했다는 점에서 추가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특히 폭행 등 학대 행위가 자행된 곳이 교실, 수학여행지 등이란 점을 근거로 동료 교사, 조장 등 학교 측이 방범을 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묵인했다는 조사 중이다. 학교 측은 지난달 25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씨를 해임했다. /구례=이성규기자 lsg@kwangju.co.kr

## 80만원 빼냈다면 야구방망이로 후배 폭행한 공익요원

‘80만원 때문에’ 야구방망이로 후배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공익요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후배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특수폭행·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광주시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후배 A(23)씨를 야구방망이와 등산용 지팡이로 1시간 동안 때려 친지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인터넷

넷 도박에 빠져 있던 문씨는 김씨의 통장에 도박자금을 맡겨 관리하던 중 김씨가 자신 몰래 80만원을 찾아 썼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또 다른 후배 김씨와 함께 지난 9월20일부터 10월25일까지 광주시 서구 9동 소재의 모텔에서 문씨를 2명을 고용, 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씨는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잠시 중단한 상황에서 퇴폐업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조사됐다. 예약 손님들에게 근무하는 회사의 사원증을 촬영해 전송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무전취식 경찰 조사 후 3시간만에 술 마시고 또 ‘배째라’

○“무전취식으로 고소 신세를 진 경험이 있는 30대 남성이 무전취식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지 3시간 만에 또다시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마셨다가 경찰서행.

은 날 2곳에서 3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장씨가 3시간 전 무전취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사실을 확인했는데, 경찰은 “장씨는 지난해에도 무전취식을 상습적으로 일삼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경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매각물건		감정평가액	매각가격	비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b>[기타]</b>				
2015타경 19689	1	북구 월출동 971-9 19396.50㎡ 2층433.20㎡ 창 [제시외건물및사무목적용] 동소 971-9 3321.5㎡	공장 공장용지	1,394,721,100 1,394,721,100
2016타경 2213	1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489-5 1738㎡ [이거 영지분19476분의4311전부, 지분매각] 동소 1호99.12㎡ [현황말실] 부속건물109.20㎡ [현황말실] 73.20㎡ 86.39㎡ [작업장] 3창, 창고 1.36㎡ [차고및창고] 제시외 화정실 6㎡ [제시외건물포함]	대 사무실,공창,창고	167,549,150 167,549,150
2016타경 10801	1	광산구 수운동 733 902㎡ 서구 금부동95번길 2 일용품소매점,사무소,주막 1-2층합106.7㎡ 부속건물 변소 2㎡ 제시외 가차 32.9㎡	대 대	294,072,800 294,072,800
2016타경 7904	1	광산구 수운동 733 902㎡ 광산구 하원길 15-11 58.51㎡ 부속건물 41.65㎡ 제시외 창고 6.6㎡ [제시외건물포함]	대 단독주택	243,142,110 243,142,110
2016타경 9689	1	동구 선교동132 2754㎡ [최용환지분1/2전부, 지분매각, 현황휴경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영광군 대마면 홍교리 211 459㎡ [현황말] 동소 212 1091㎡ [물건번호1:목욕1,2경계구담, 변없이담으로이용]	전 전	19,415,700 23,250,000
2016타경 62611	1	영광군 법성면 임암리 5168 96171㎡ [허영수지분15분의1전부, 지분매각]	임야	11,540,520
<b>[자동차, 중기]</b>				
2016타경 10634	1	사용번호지:전남 영광군 영산면 칠산로10길30 등록번호:04DA8431 차명:사브(SAAB) 연식:2000	자동차	2,000,000 2,000,000

●공고된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청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하며, 이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발매할 변경으로 인한 매매부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③공유자간 민사합쟁등 제40조의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생기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최초매각기일에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권은 본다. 2. 매각기일 : 2016. 11. 18. (금) 10:00

2016. 11. 3. **광주지방방법원 사법보좌관 운영수**